

2026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지

국어 영역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너는 달빛에 더 아름답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 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13~16쪽
 - 언어와 매체 17~20쪽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서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있어야 한다. 텍스트는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글을 의미하며, 여러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다. 텍스트의 특성 중 중요한 것은 통일성과 응집성이다.

통일성이란 텍스트의 하위 내용들이 의미상 하나의 주제를 일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에 통일성이 있다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독자가 문맥과 배경지식, 상황 맥락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의 의미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추론 과정을 통해, 텍스트가 전달하려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응집성이란 텍스트의 하위 내용들이 표면상 긴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접속이나 대용을 나타내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접속 표현이란 두 개 이상의 내용을 연결하는 표현으로, 주로 연결 어미나 접속부사를 통해 나타난다. 대용 표현이란 앞에 나온 내용의 반복을 피하고자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내용의 자연스러운 연결 외에도 글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하는 효과가 있다. 접속 및 대용 표현 외에도 예고, 강조, 요약, 예시, 열거 등 내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유 없이 중복되는 내용을 생략하면, 내용 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면 텍스트의 내용이나 흐름이 명확해져 주제가 잘 드러나므로 통일성도 같이 높아진다.

통일성과 응집성 외에도 텍스트는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호 텍스트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의도성은 텍스트가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제목이나 내용, 문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용인성은 텍스트가 독자에게 의미가 있으며 적합한 내용으로 인식되는 것인데, 같은 텍스트라도 독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독자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이 용인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성은 텍스트가 독자가 알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텍스트에 독자가 몰랐던 정보가 많을수록 정보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상호 텍스트성은 하나의 텍스트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다른 텍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의 일부를 인용한 부분이 있거나 기존에 있던 텍스트의 내용이나 형식을 패러디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창작하는 것도 상호 텍스트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가 이런 특성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텍스트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독자 또한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를 해야 의미 있는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텍스트는 독서의 대상이 되며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글을 의미한다.
- ② 대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텍스트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할 수 있다.
- ③ 텍스트의 통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하위 내용들의 의미를 살펴야 한다.
- ④ 완성된 텍스트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독자에 따라 텍스트의 내용이 적합하게 인식되는지 여부는 차이가 없다.
- ⑤ 텍스트에서 이유 없이 앞에서 언급된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생략하여 내용 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2. [응집성]을 바탕으로 <보기>의 ㉠~㉣의 적절성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째,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스크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둘째, 도로변이나 공사장 주변 등에 있다면 ㉢그런 곳은 미세 먼지 농도가 높으므로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셋째, 실내에 있다면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청소나 공기 청정기 가동을 통해 실내 먼지를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요컨대 자가용 운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 ① ㉠: 열거의 시작을 나타낼 수 있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 ② ㉡: 문장 간의 관계를 알려 주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 ③ ㉢: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 ④ ㉣: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예시가 이어짐을 알려 주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 ⑤ ㉤: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요약의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3.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제목: 인생의 교훈
꼬여 있는 줄은 당기기만 하면 풀리지 않는다. 이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으므로, 때로는 상대를 고려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제목: 언어의 사회적 특성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할 수 있다. 인간의 사고는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감정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강렬한 외부 자극은 뇌의 편도체에 영향을 미쳐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이성적 사고와 감정이 상호 작용할 때 창의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다.

- ① ㉠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으므로 용인성이 없겠군.
- ② ㉠은 문맥을 통해 첫 번째 문장에 담긴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일관된 주제를 전달하므로 통일성이 잘 드러나는군.
- ③ ㉡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 사용으로 인해 문장 간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정보성이 없겠군.
- ④ ㉠과 ㉡은 텍스트의 목적과 내용이 제목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의도성이 잘 드러나는군.
- ⑤ ㉠과 ㉡은 유추의 방식으로 텍스트의 내용이 전개되므로, 두 텍스트는 내용 전개 방식에서 상호 텍스트성을 지니고 있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묵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이며,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학파를 묵가라고 한다. 묵자의 사상과 이를 담은 책들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잊혔지만, 청나라 시대에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경서를 연구하는 고증학이 발달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묵자는 본래 유학을 공부하였으나, 유학이 농민과 같은 피지배층의 현실과 ㉠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상을 전개하고자 했다.

묵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묵자는 전쟁과 같은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서로 사랑하지 않음을 뜻하는 불상에 때문이며, 불상애가 일어나는 원인은 차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별애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묵자는 별애와 반대되는 차별 없는 보편적 사랑을 의미하는 겸애를 하면 혼란과 갈등이 없어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런 묵자의 주장에 대해,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으므로 겸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묵자는 오히려 겸애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을 위하듯 남을 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하듯 남의 나라를 위한다면, 온 세상이 이로워져 결국 그 이익이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가 이루어지면,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가짐을 뜻하는 교리가 따르게 된다는 겸애 교리의 사상을 주장하였다.

또한 묵자는 백성들의 삶을 위해 절용을 강조하였는데, 절용이란 노동의 결과물인 재화를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낭비하지 않고, 재화의 본래 목적대로 절도 있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재화를 아껴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묵자는 절용을 실행하기 위해 절장과 비악을 주장하였다. 절장이란 장례 의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묵자는 삼년상과 같은 당시의 장례 의식이 노동의 결과물인 식량이나 재물을 허비하게 만들고 노동에 사용해야 하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므로, 장례 의식을 줄일 것을 주장한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묵자는 비악을 주장하였는데, 비악이란 음악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묵자가 음악이라는 예술 그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며, 지배층의 사치를 위한 음악이나 국가 의식의 예법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음악처럼 백성들의 노동력이나 노동의 결과물을 착취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악을 비판한 것이다.

묵자는 노동을 매우 중요시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노동과 관련된 것이 많다. 그는 사람들이 각자 능력에 맞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적 분업을 실시하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과 동물은 노동의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사람은 노동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금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앞서 말한 절용 또한 인간의 중요한 행위인 노동을 통해 생산한 것을 헛된 곳에 쓰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므로 노동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사상이라 볼 수 있으며, ㉡ 절장과 비악에도 노동과 백성의 삶을 중요하게 여긴 묵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4.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묵자는 농민과 같은 피지배층의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 ② 묵자의 사상은 실증적인 증거에 근거해 경서를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 ③ 묵자는 노동으로 얻은 재화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 ④ 묵자는 서로 사랑하지 않음을 뜻하는 불상에 때문에 전쟁과 같은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 ⑤ 묵자는 사람들이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노동에 종사한다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례 의식을 줄이고 음악을 활용하면 백성들의 노동력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장례 의식과 비실용적인 음악을 위해 사용하는 재화는 노동의 결과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장례 의식과 사치를 위한 음악은 노동을 방해하고 백성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④ 장례 의식과 국가 의식에 사용하는 음악을 제재하면 국가의 사상적 기반을 흔들어 백성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⑤ 장례 의식과 예법을 지키기 위한 음악을 통해 사회가 도덕적으로 성장하면 사회 혼란을 막아 노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학생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공자는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려면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를 잘 알고 그에 맞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철저히 구별하고, 각자가 자신의 상황과 사회적 위치에 맞는 예절과 법도를 따른다면 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공자는 선천적이고 내재적인 인간다움과 도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른 사람의 부모보다 자신의 부모를 더욱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다른 나라의 백성보다 자신의 나라의 백성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군주로서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사랑에 있어서 대상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 ① 공자와 묵자는 공동체의 화합과 유지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 예법을 충실히 따를 것을 강조하는군.
- ② 공자와 묵자는 사람들이 주어진 신분에서 벗어나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군.
- ③ 공자는 대상에 따른 사랑의 차이를 당연하다고 인식하였지만, 묵자는 모두가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군.
- ④ 공자가 추구하는 사랑은 묵자가 추구하는 사랑과 달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군.
- ⑤ 공자는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도를 강조하지만, 묵자는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이 지켜야 하는 행동을 강조하는군.

9.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품 화폐는 금속 화폐에 비해 온도나 습도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 ② 17세기 영국에서는 화폐를 특정인에게 맡기고 보관증을 받은 후 화폐가 필요하면 보관증과 화폐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 ③ 물물 교환은 내가 상대방의 재화를 원하는 시기와 상대방이 나의 재화를 원하는 시기가 일치해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 ④ 금속 화폐는 금속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같은 가치의 상품 화폐에 비해 무겁지만 내구성이 뛰어나고 형태의 표준화가 가능하다.
- ⑤ 화폐를 이용하면 상대방이 현재 원하고 있는 재화가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10.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부도와 같은 특수한 사태가 없다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적다.
- ② 현금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국가가 보급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다.
- ③ 예금처럼 전자 시스템을 통해 보관 및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기록될 수 있다.
- ④ 현금과 달리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현금과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 ⑤ 국가에 심각한 사태가 없고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면 화폐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11. ㉠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앙은행이 민간 은행에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줄인다.
- ②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는다.
- ③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세금 납부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 주체에게 혜택을 지급한다.
- ④ 통신망이 연결되지 않아도 각종 기기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결제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도입한다.
- ⑤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자율을 민간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율보다 낮게 적용한다.

12.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상 화폐인 A 코인(단위: a)이 유명해지고 가상 화폐 전자 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A 코인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피자를 판매하는 P 식당은 A 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홍보하였다. P 식당은 피자 한 판의 가격을 10a로 책정해 판매하였고, 실제로 몇몇 고객은 P 식당에서 A 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하였다. 얼마 뒤 정부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한다면 가상 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수는 있으나,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거래 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의 도움을 받기 힘들며, 가상 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발표 이후 A 코인의 시세는 하루 만에 기존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P 식당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자의 가격을 20a로 조정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고객의 불만과 혼란을 예상하여 A 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하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

- ① A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치의 척도로 기능하는데 유용하다.
- ② A 코인을 이용한 재화의 구매는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 ③ A 코인은 불환 지폐와 달리 정부나 은행이 현재 가치에 상응하는 금속으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
- ④ A 코인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일부 기능하였으나,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는 화폐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 ⑤ A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민간 은행이 관리하는 예금과 달리 화폐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없다.

13.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는 친구의 도움에 용기를 얻었다.
- ② ㉡: 그는 어른에게 깍듯이 말을 높였다.
- ③ ㉢: 집에서 학교까지는 거리가 매우 멀다.
- ④ ㉣: 이번 협상에서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 ⑤ ㉥: 그에게 말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나는 그가 어렵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 등 특정한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이나 소금은 식품의 맛이나 향미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식품 첨가물이라 할 수 있다. 완성된 식품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 중 식품에 사용되었으면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식품에 닿는 기구나 식품 용기 및 포장을 살균하거나 소독하는 데에 사용하는 물질 중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도 식품 첨가물이라 할 수 있다.

식품 첨가물은 여러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자연에 있는 자원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한 후 정제하거나 발효하여 얻을 수도 있고, 화학적 합성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 화학적 합성을 통해 얻은 식품 첨가물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자연에서 구할 수 없는 물질일 수도 있다.

식품 첨가물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첫째로 특정한 식품 가공 공정에 꼭 필요하여 식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껌의 제조에는 씹을 때 점성이 있으며 녹지 않는 물질인 껌 기초제라는 식품 첨가물이 필요하며, 두부의 제조에는 콩을 갈아 만든 콩물을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 주는 응고제라는 식품 첨가물이 필요하다. 둘째로 식품의 보존성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식품 첨가물인 산화 방지제를 사용하여 식품 내 지방질의 산화로 인한 독성 물질의 생성을 막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식품에 대한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식품 첨가물인 향료나 향미 증진제를 사용하여 식품의 향미를 개선하거나, 착색료를 첨가하여 식품의 색깔을 개선해 먹는 즐거움을 더해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로 식품 자체에 부족하게 포함된 영양소나 식품 가공 중 손실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유제품 가공 중 손실된 칼슘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나의 식품 첨가물을 식품 제조 시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든 물질은 섭취량에 따라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도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 특정 물질의 안전성 및 유해성은 해당 물질의 섭취나 투여에 따라 유해 반응이 나타난 실험 대상의 비율을 나타낸 용량 반응 곡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식품 첨가물 또한 용량 반응 곡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식품의 섭취량은 식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식품 첨가물의 용량 반응 곡선만으로는 식품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식품 종류에 따른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식품 종류별로 중량당 함유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의 체중과 식품 섭취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섭취량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섭취량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일일 섭취 허용량이 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에 남아 있는 잔류 농약 등 특정한 물질을 인간이 평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에 섭취 가능한 용량이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평생 동안 섭취할 경우에 발생하는 만성 독성을 근거로 산출된 값으로, 최대 무독성량을 안전 계수 100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최대 무독성량이란 동물 실험에서 특정 물질과 관련된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그 물질의 최대 섭취량이며, 안전 계수는 특정 물질의 안전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계수로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물질의 최대 무독성량이 체중 1kg당 10mg이라면 이 물질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0.1mg이 된다. 즉 안전 계수는 동물 실험과 실제 개개인에 적용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 계수는 동물과 사람의 중간 차이를 10으로 두고 사람 간의 차이를 10으로 두어 두 수를 곱하여 얻는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 일일 섭취 허용량을 약간 초과하는 양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섭취한 양의 하루 평균이 일일 섭취 허용량 이하라면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기 어렵다.

14.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부와 껌은 일반적으로 특정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한다.
- ② 식품의 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식품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물질은 식품 첨가물이 될 수 있다.
- ③ 식품의 생산 과정 중 향미를 증진할 목적으로 카페인을 첨가하는 것은 식품 첨가물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④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 중에 재료에서 손실된 영양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은 식품 첨가물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특정 식품의 조리 기구 제조에 사용되지만 조리 기구 제조 완료 전에 완전히 제거되어 식품에 남아갈 수 없는 물질은 해당 식품에 포함된 식품 첨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료 외에도 다양한 물질이 사용된다. 효모 등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물질을 팽창제라고 하는데, 팽창제가 없으면 일반적인 빵을 제조할 수 없다. 안식향산은 매실 등 열매에서 추출하거나 화학적 합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로 식품의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으며, 수산화나트륨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지만 수분 손실을 방지해 보존성을 높이거나 식품의 산도를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① 자연에 있는 자원에서 추출한 안식향산뿐 아니라 화학적 합성을 통해 얻은 안식향산도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팽창제는 일반적인 빵을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므로, 빵의 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수산화나트륨을 식품 가공 중 수분 손실을 방지해 식품의 보존성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안식향산이 식품의 부패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도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사용량을 법적으로 제한하겠군.
- ⑤ 안식향산이나 수산화나트륨이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된 후 완전히 제거되어 완성된 식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식품 첨가물의 사용으로 볼 수 없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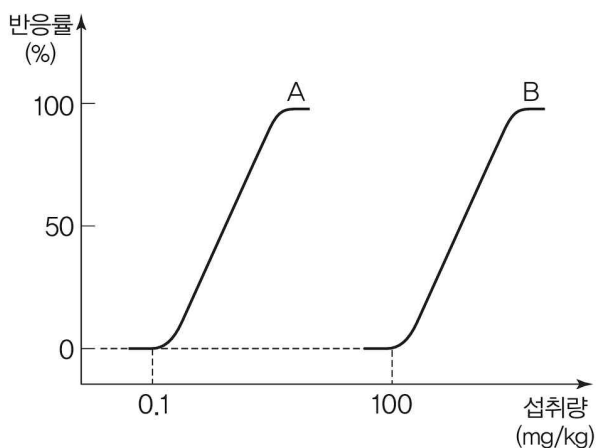
1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물이 사람보다 특정 물질의 섭취에 따른 유해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실험동물 간의 차이와 동물과 사람 간의 차이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③ 동물이 섭취하면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는 물질도 사람이 섭취하면 유해한 영향이 대부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 ④ 특정 물질을 섭취할 때 동물과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는 크지만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 ⑤ 동물과 사람의 중간 차이와 사람 간의 차이에 따라 특정한 물질의 섭취에 따른 영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물질 A, B를 체중 1kg당 섭취한 양에 따라 유해 반응이 나타난 실험동물의 비율을 나타낸 용량 반응 곡선이다. A는 특정 어류의 내장 등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이고, B는 식품 첨가물로 흔히 사용되는 물질 중 하나이다. 실험 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물질 A, B의 예외적인 유해성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A는 독성 물질이지만 섭취량에 따라 동물에게 유해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② A는 소량의 섭취에도 유해 반응이 나타나 식품에 첨가하기 어려운 물질이지만 일일 섭취 허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 ③ B는 섭취하는 사람의 체중이 달라지더라도 일일 섭취 허용량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 ④ B는 식품 첨가물로서 식품 1개당 100mg 이상 포함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 ⑤ B는 건강한 사람이 체중 1kg당 1mg 이상 섭취하더라도 섭취량과 섭취 기간에 따라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용(仙容)*을 친히 뵈 듯하여라

[A]

풍설 섞어 친 날에 문노라 북래(北來) 사자(使者)*야
소해(小海) 용안(容顏)*이 얼마나 추우신가
고국(故國)의 못 죽는 고신(孤臣)이 눈물겨워 하노라

<제1수>

<제2수>

박제상 죽은 후에 ㉠의 시름 알 이 없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뉘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 치술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퍼하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많아라
㉢ 신고(辛苦)한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한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廐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할* 이 없어라

<제6수>

구렁에 낫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없으니 그 아니 좋을쏘나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하노라

<제8수>

이것아 어린것아 잡말 하지 마라
칠실(漆室)의 비가(悲歌)*를 뉘라서 슬퍼하리
㉣ 어디서 탁주(濁酒) 한잔 얻어 이 시름 풀까 하노라

<제10수>

- 이정환, 「비가」 -

- * 학가 선용: 수레를 탄 왕자의 모습.
- * 북래 사자: 북쪽에서 온 사신.
- * 소해 용안: 우리나라 왕자의 얼굴.
- * 춘궁: 왕세자.
- * 조구리: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 참승할: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 * 칠실의 비가: 제 신분에 맞지 않는 근심을 가리킴.

(나)

삼가 문안드립니다. 이러한 때 애형(哀兄)께서는 기력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요? 봄철이 반 넘어 지나고 보니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한 아픔이 더욱 새로우리라 여겨집니다.

인하여 생각해 보니 금번 남한산성의 포위에서 벗어나면서 만 번 죽을 고비에서 한 번 살아남을 얻어 임금과 나라를 보전 하여 함께 옛 도읍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불행 중 다행이라 말할

[B]

만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동방의 예의지국이 정백(鄭伯)이 양을 끌고 간 탄식*을 면치 못하였으니 우리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보좌함에 불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우가 청나라 진영으로부터 뒤늦게 돌아와 보니 형의 인척이신 청음 김상헌 대감과, 동계 정은 대감은 척화의 영수로서 임금께서 적진의 포위를 벗어나 종사를 보존하고 평안하게 환도한 것을 문안조차 하지 않고 나란히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척화의 청론(淸論)은 위로는 명나라 조정을 위하고 아래로는 사대부의 여론을 붙든 것으로 천지의 뗏뗏한 길이자 고금에 통하는 의리입니다. ㉔ 그것을 정론으로 삼는 것은 비록 삼척동자라 해도 모두 아는 바입니다. 우리 또한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미 조선의 신하이니 우리 임금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중국 조정만을 위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혐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만력 황제가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준 은덕*은 우리나라의 군신이라면 누구든 감격하여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존망의 즈음에 이르게 된다면 ㉕ 어찌 지난날 재조(再造)의 은덕만을 위해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서겠습니까?

이런진대 동방의 나랏일을 맡은 신하가 반드시 명나라를 위해 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의리에 당당하고 선현의 가르침과도 실로 부합됩니다. 하지만 김상헌, 정온 두 대감은 도리어 이러한 의리에 어두워 나라를 보전한 뒤에 한갓 척화의 청론만을 숭상하니 의리로 중도를 붙드는 것이 과연 어렵다 하겠습니까. 퍼런 칼날을 밟을 수는 있지만 중용은 능히 할 수가 없다는 논의가 진실로 헛말이 아닙니다.

비록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버려두어 논하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닥칠 일이 또 난처한 점이 많으니 이를 장차 어찌합니까? 형처럼 고명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죄로 칩거하고 있고 나같이 식견이 얇은 사람이 불행하게도 전형(銓衡)*을 맡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비방은 많고 도움은 적었던 몸인지라 홀로 못 화살과 회초리 속에서 건디고 있습니다. 장차 청론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잘 처신할 수 있을지요?

하도 못난 사람이다 보니 청론을 진정시키기가 백등(白登)의 포위망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날카로운 기세를 조금 눌러 그 동정을 살핀 뒤에 천천히 죄를 풀고서 등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애형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군요. ㉖ 형은 이미 나라를 보전하는 일을 함께 했고 또 한편으로는 청론을 아우르고 있는지라 이번에 우러러 의논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중에 있다 해도 잘 살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갖추지 않습니다.

- 최명길, 「여장계곡서(與張谿谷書)」 -

* 정백이 양을 끌고 간 탄식: 춘추 시대 정나라 양공이 초나라 군대에 석 달 동안 포위당하자 직접 양을 끌고 가 초나라 장왕에게 사죄하고 강화를 청한 사건.
 * 만력 황제가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준 은덕: 명나라 신종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구원병을 파견한 일.
 * 전형: 됴됨이나 재능 따위를 가려 뽑음. 또는 그런 일.
 * 청론을 진정시키기가 ~ 더 어렵습니다: 전한의 고조가 백등산에서 흉노의 군사에 7일간 포위되었다가 흉노의 왕비에게 뇌물을 주고 간신히 탈출한 사건과 연결하여 척화파의 불만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밝힘.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소망이 나타나 있다.
- ② (나)에는 시대적 고난에서 도피하려는 심리와 그에 대한 자책이 나타나 있다.
- ③ (가)에는 (나)와 달리 죽은 인물들의 행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㉑~㉗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한 후에도 조선의 지배층은 합심하지 못하고, 척화(斥和)를 내세우는 명분론자와 주화(主和)를 내세우는 현실론자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었어요. (가)의 작가는 지방에서 은거 생활을 하면서 우국의 정을 표출하였고, (나)의 작가는 국정에 참여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가)와 (나)를 살펴보면서 전란 후의 상황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심리나 태도, 견해 등을 파악해 보세요.

- ① ㉑: 화자는 명분론자의 관점에서 청나라가 요구한 굴욕적인 항복을 수용한 현실론자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군.
- ② ㉒: 화자는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심리적 고통을 달래고 있군.
- ③ ㉓: 글쓴이는 명분론을 인정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군.
- ④ ㉔: 글쓴이는 조선의 신하들이 무조건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군.
- ⑤ ㉕: 글쓴이는 상대가 병자호란 때부터 명분론을 포기하고 현실론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군.

20. [A]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타인이 지닌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화한 소재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나열하여 계절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21. (가)의 화자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꿈’에서 ‘만 리 요양’을 다녀온 것을 밝히며 대상과의 만남을 바라고 있군.
- ② ‘눈물겨워 하’고 ‘시름겨워 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을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늪라셔 모셔 오리’와 ‘참승할 이 없어라’의 상황을 제시하며 슬픔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어린것’에 대해 ‘잡말 하지 마라’라고 훈계하며 ‘무신’을 본받기를 바라고 있군.
- ⑤ ‘아는 일 없’이 자라는 자연물과 ‘우리’를 대조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22. <보기>를 참고하여 ㉠,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신라 눌지왕의 신하인 박제상은 고구려와 왜국에 볼모로 잡혀 있는 왕의 아우들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먼저 고구려에서 왕의 동생 복호를 데려온다. 그리고 집에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왜국으로 건너가 왕의 또 다른 동생 미사흔을 신라로 탈출시키지만 자신은 왜왕에게 죽음을 당한다. 치슬령에서 남편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던 박제상의 아내는 끝내 돌이 되었고, 박제상의 영혼만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① ㉠은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며 지속적인 애정을 쏟는 대상이다.
- ② ㉡는 화자가 문제 상황의 해결과 관련하여 떠올리는 바람직한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의 슬픔을 해소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의 슬픔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④ ㉠과 ㉡는 모두 화자가 자신의 지난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는 대상이다.
- ⑤ ㉠과 ㉡는 모두 화자가 가치관을 바꾸고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깨우치는 대상이다.

23. [B],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 글쓴이는 초상을 당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안부를 묻고 있다.
- ② [B]: 글쓴이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청나라 진영을 방문한 적이 있다.
- ③ [B]: 글쓴이는 환도를 행운이라 생각하면서도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신하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 ④ [C]: 글쓴이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각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C]: 글쓴이는 상대방에게 묻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끼 치레 불작시면 다홍색 비단 두루마기에 초록색 비단 깃을 달아, 자주색 비단 동정 짓고 구름무늬의 비단 옷고름에 주먹만 한 벼에 옥으로 만든 관자의 열두 꿇지깃으로 장

[A] 식한 풍채가 대장부와 다를쏜가? 까투리 치장 둘러보니 잔누비 줄누비를 폭폭이 잘게 누벼 상하 의복 갖추어 맵시 좋은 머리꽃이, 곱게 빗어 단장하고 열두 딸 아홉 아들 스물하나 자식들을 앞세우고 뒤세우고 어서 가자 쉬이 가자.

아래 평전(平田) 발머리에 줄줄이 들어서서 너는 이 골 좁고 나는 저 골 좁고 알알이 콩을 주워 먹으니 인간의 고량진미를 바라지 않는도다. 하늘이 만물을 내며 모두에게 복록을 주었으니, 한번 배불리 먹는 것도 내 운수에 달려 있도다. 허기를 채우려니 그 무엇을 못 먹으랴.

점점이 주워 들어가니 콩 한 날 덩그렇게 놓였거늘 장끼란 놈 크게 혹하여,

“내 복으로 먹어 보세.”

까투리 이른 말이,

“㉠ 애개, 그 콩 먹지 마소. 들어온 자취 나간 자취, 비로 활활 쓴 듯하고 입으로 활활 분 듯하니, 분명한 사람 흔적이다.”

장끼란 놈 이른 말이,

“너의 말이 미련하다. 이때를 이룬진댄 동지선달 엄동이라.

㉡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 있으니, 일천 산에 새들 나는 것도 끊어지고 일만 길에 인적도 보이지 않도다. 사람의 자취, 어이 있을쏜가? 간밤에 꿈을 꾸니 황학을 비껴 타고 청천으로 솟아올라 옥황상제께 문안했노라. 옥황상제께서 하교하시어 산림처사에 봉하고 만석 들어가는 곡식 창고의 콩 한 섬을 상으로 주셨으니, 오늘 이 콩 한 날 그 아니 반가운가?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마련해 주기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마련해 주기 쉬운 법이라. 하물며 굶던 차에 오늘 아침 먹기 전이라.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이 마다 하랴?”

까투리 이른 말이,

“㉢ 그 꿈이야 좋거니와 내 꿈으로 불작시면 모두 흉몽 아닌 것이 없었노라. 어젯밤 이경 초에 한 품으로 잠을 자고 찬 바람 일어나며 태아검(太阿劍)*처럼 잘 드는 칼로 빛 좋은 자네 머리 텅정 베어 떨어지니 자네 죽을 흉몽이라. 부디 그 콩 먹지 마소.”

장끼란 놈 이른 말이,

“그 꿈 좋다. 해몽을 해 보자. 춘당대 알성과의 문무방에 이름이 올라 계수나무로 만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춘풍에 홀날리며 낙수교 위 청운으로 입신양명할 꿈이라. 과거 시험에나 힘써 보자.”

까투리 이른 말이,

“삼경 초에 꿈을 꾸니 친근들이 무쇠 가마솥에 자네 머리 덩뻑 썩워 만경창과 깊은 연못에 아주 덩뻑 빠졌거늘, 내 혼자 그 물가에 슬피 서서 통곡하니 이 아니 흉몽인가?”

장끼란 놈 하는 말이,

“그 꿈이 더욱 좋다. 명나라가 중흥하려 구원병을 청하거든,

이내 몸이 선봉 되어 주변의 질투를 무릅쓰고 압록강 건너가서 중원(中原)의 항복을 받고 황하에서 병기를 씻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수륙 대장 되오리다.”

까투리 이른 말이,

“삼경 아래 꿈을 꾸니 어른이 당상 위에 앉아 있고 자손이 잔치할 때 스물두 폭 베 차일을 사방으로 고였거늘 세 발 장대 고치다가 우지끈 똑딱 부러지며 이내 머리 자네 머리 덮었으니 답답한 일 볼 꿈이오. 오경 초에 꿈을 꾸니 많은 작은 별이 하늘에 가득한데 태을성(太乙星)과 삼태성(三台星)은 자미성(紫微星)을 둘러 있고, 견우성 직녀성은 은하수를 둘렀는데, 별 한 점이 똑 떨어져 자네 앞에 놓였으니 자네 장성(將星) 아닐런가? ㉠ 삼국 전쟁으로 요란할 때 축한의 모사* (謀士) 제갈량도 오장원(五丈原)에서 운명할 때 장성이 떨어졌다 하니, 이로 봐도 불길하다.”

(중략)

까투리 할 말 없어 경황없이 물러가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 [B] —
 콩 어르며 들어갈 때, 열두 장목 아홉 살길을 좌르륵 퍼 뜨리고 꼬박꼬박 고개 쪼아 조금조금 걸어 들어 빗날 같은 부리로 들입다 짹 집으니 두콰푼 통기면서 머리에 넘어지는 소리, 박랑사에서 쇠 방망이로 진시황의 둘째 수레 때리는 듯, 아방궁 대들보를 짹 빼어 지르는 듯, 와지끈 똑딱 —
 꺾꺾 푸드덕 변통 없이 치었구나.

까투리의 거동 보소. 뉘엿머리 펼치고 상하 평전 자갈밭에 떼굴떼굴 구르다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에에 통곡하는 말이,

“독한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위에는 이로운 법이라. 내가 한 말 들었으면 저런 변을 당할쏜가? ㉡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초한 재앙은 어이하리?”

장끼란 놈 이른 말이,

“**에라 이년, 요란하다.** 미련을 두면 좋은 기회를 잃게 되는 법이니라. **네 탓 내 탓 부질없다.** 범에 물려 죽을 재앙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사람 누가 있으며, 물에 빠져 죽을 재앙을 미리 알면 배에 탈 사람 누가 있으랴? **쓸데없는 잡담 다 던져 버리고, 이 애야 곁으로 바빠 오거라.** 죽고 사는 것은 맥으로 안다 하니, 맥이나 짚어 봐 다오.”

까투리 맥을 보더니,

“비위맥(脾胃脈)이 움직이고 중맥(中脈)이 점차 없어지고 신맥(腎脈)이 유별하고 간맥(肝脈)이 서늘하고 태충맥(太沖脈)이 끊어지고 명맥이 이미 끊어졌네.”

- 작자 미상, 「장끼전」 -

* 태아검: 중국 초나라의 이름난 칼.
 * 모사: 피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24.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끼는 밋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통곡하였다.
- ② 장끼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③ 까투리는 장끼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맥을 짚어 상태를 확인하였다.
- ④ 까투리는 장끼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⑤ 까투리는 가족의 생계는 돌보지 않고 과거 시험만 준비하는 장끼를 원망하였다.

2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의 외양에 대해, [B]는 인물의 행동에 대해 서술자의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인물의 차림새를 시각적으로, [B]는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비유적인 상황 묘사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③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동 변화를,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의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B]는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바탕으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과거의 상황을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생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② ㉡: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계절의 속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추론의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④ ㉣: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며 그와 같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으로써 예상한 일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어떤 장면이 지나치게 확대·부연되어 서술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서사의 속도감보다는 해당 부분의 상황이나 그에 따른 의미와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끼전」은 인물 간의 소통 장애가 더 큰 사건을 초래하게 됨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장끼 부부의 반복되는 논쟁을 통해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두 인물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말의 논리뿐만 아니라 인물의 태도,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역시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① 장끼 부부의 반복되는 논쟁을 보여 주면서 서술자가 한 편만을 들어 ‘장끼란 놈’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장끼의 논리와 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인물에 대한 독자의 합리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군.
- ② 장끼가 까투리의 말에 대해 ‘너의 말이 미련하다’, ‘에라 이년, 요란하다’며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③ ‘머리 땡겨 베어 떨어지’는 꿈, ‘무쇠 가마솥’을 머리에 쓴 채 ‘깊은 연못’에 빠지는 꿈 등을 모두 출세하는 꿈이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하는 장끼의 논리는 독자가 장끼를 비합리적인 인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군.
- ④ ‘자네 죽을 흥몽’을 ‘그 꿈 좋다’며 까투리와 장끼가 꿈풀이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서사의 속도감보다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인물의 대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군.
- ⑤ 장끼가 ‘네 탓 내 탓 부질없다’며 ‘쓸데없는 잡담 다 던져 버리’라고 하는 것은 까투리와 소통 장애로 초래된 사건을 해결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는 폐결핵과 장질부사에 걸려 제3 병동에 수용된다. 그의 딸 강남옥 처녀가 온종일 병실에 머물며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같은 병에 감염된다. 의사 김중우는 돈이 없어 입원하지 못한 강남옥을 딱하게 여겨 무상으로 매트를 제공하고 치료해 주었지만, 이를 수납계 직원에게 들켜 서무과장에게 불려 간다.

멀리서 하늘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허물어져 가는 제3 병동의 유리창을 마구 때렸다. ㉠ 혈령한 창문 틈바구니마다 빗물이 새어 들어 유리를 타 내리고, 강남옥 처녀가 누워 있는 쪽 천장 구석도 차츰 젖어 들기 시작했다. 그러한 빗속에서도 불도저는 내쳐 부르릉거렸다. 운전사는 필시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을 테지. 명령, 아니 인간의 강하고 약함이 한꺼번에 실감되는 그러한 경황이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그 둔탁스런 불도저 소리도 환자들

에게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결같이 희멀건 눈들이 쏟아지는 빗발을 심심치 않게 내다보는가 하면, 그 속에서 부르릉대는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요컨대 그들은 병원 생활이 무척 괴롭고 지루했던 것이다. 가뜩이나 전염병 환자만이 늘어져 있는 허물어져 가는 3등 병실에서, 그저 치료비 독촉장이나 받을 뿐, 누구 하나 꽃이라도 들고 깎듯이 찾아 주는 사람도 없는 3등 인간인 그들에게는!

㉡ 그러니까 때로는 비도 반가웠고 불도저 소리도 거슬리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때쯤 우르릉하는 먼 천둥소리에, 솟제 살아 있는 하늘의 방향이라도 잡아 보려는 듯, 눈을 번쩍 뜨는 환자도 있었다. 말하자면 누에가 잠을 잘 때 고개만은 치켜들고 있듯 빗소리에 한결 조용해진 병실 안 사람들도 신경은 내쳐 날카롭기만 했던 것이다.

다만, 넓적한 마스크를 한 간호원이 가끔 와서 보고 가는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만이, 또다시 떨어져 들어가는 피를 받으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강남옥 처녀는 시종일관 모든 것을 살살이 눈여겨보았다. ㉢ 매트 위에 누웠을 때도, 천장을 향해 있는 그녀의 핏발 선 커다란 눈은 마치 병실 안 전체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딱 다문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말들을!

……더구나 수납계의 고참 직원이 불쑥 나타났을 때의 일, 서무과 급사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간호원의 심상치 않은 표정…… 이러한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덩달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측이며 생각들이 한때 어머니에 대한 걱정까지도 밀어 버리고 그녀의 망막과 머릿속을 점령했다. 천장에 맺혔던 물방울이 툭 하고 머리맡에 떨어질 때 그런 의식에서 일단 단절된다. 그러나 다시 덮친다. 다시 덮치다간, 결국 이것도 저것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머리가 몽롱해 온다. 머리가 몽롱해 오며 의식마저 허물어진다. 결국 그녀의 의식은 고열로 인해서 녹아진 것이다.

강남옥 처녀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녀의 몸뚱이가 김중우 의사와 간호원들에 의해서 그녀의 어머니 곁으로 옮겨졌을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저 보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김중우 의사가 그녀가 누워 있던 빈 매트를 발로 밟다 밀어 버리며 괜히 죄도 없는 간호생을 보고 투덜대고 있었다.

“인부 시켜, 수납계 그 늑다리한테 딱 갖다 보이고서 치워 두래! 알았어?”

아직 경험이 없는 실습 간호생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빨리 그러라니까!”

김중우 씨의 말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수간호원이 간호생 더러 뭐라고 타일러 보낸다. 강남옥 처녀는 팔꿈치에 따끔한 것을 느낀다. 링거 방울이 눈물처럼 눈에 아른거린다. 김중우 의사는 그것을 조절하면서 또 씨부렸다.

“저희들은 턱도 아닌 것들을 데리고 와서 관비 치료니 뭐니 하면서…….”

“그러기 말예요.”

수간호원이 맞장구를 치듯 받는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원장님도 원장님이시 뭐예요.”

좁은 병상 위에서 한쪽은 피 주사를, 한쪽은 링거 — ㉣ 다행히 몸피가 여윈 3등 인간이라 좋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차스런 꼬락서니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튿날 저녁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의 몸뚱이는 드디어 병상에서 내려졌다. 뺏어진 것이다.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의 시체는 사흘 동안이나 시체 안치소에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는 사람이 죽더라도 입원비를 다 내지 않으면 시체를 간대로* 내주지 않는다. ‘누님 전 상서라…….’ 하고 보내 준 외삼촌의 돈도 벌써 다 써 버리고 밀린 약값만 해도 수월찮았거니와 설사 그런 걸 다 무사히 치른다 하더라도, 강남옥 처녀 혼자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중략)

㉔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 허물어져 가는 제3 병동의 한 귀퉁이라도 무너뜨리려는 지 우지끈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다행히 시체 안치소의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 때 누가 문틈으로라도 엿보았더라면, 죽어 있는 시체보다 을씨년스럽게 울어 대는 처녀의 모습에 더욱 질렸을 것이다.

이젠 간호원들도 그녀의 열을 재려 오지 않았다. 의사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방해할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널빤지로 된 문짝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까 그 **인부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약간 주기가 있는 듯한 얼굴들로서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처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위로차 온 모양이다.

“그양 울 수도 없고, 암매[아마] 향불도 미쳐 못 구했지 싶어서…….”

그들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있는 강남옥 처녀를 때 놓듯이 하고 ㉕ **향을** 피워 주었다.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포켓 속에서 조그만 초까지 꺼내어 촛불까지 밝혀 주었다. 손등에는 빗물들이 번질 거리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혼감한* 정까지 겹쳤음인지 강남옥 처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퍼졌다.

나이 늙수그레한 인부 한 사람은 병원 구내에 살았던 모양으로 아침 일찍 부인을 시켜 죽까지 한 그릇 치면하게* 갖다주었다. 우격*에 못 이겨 그걸 받아 마시는 강남옥 처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했다. 죽 위에 사뭇 떨어졌다. ㉖ **3등 인간도** 끝내 외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 김정환, 「제3 병동」 -

* 간대로: 그리 쉽사리.

* 혼감한: 기쁘게 여기어 감동한.

* 치면하게: 그릇 속의 내용물이 거의 가장자리까지 차 있게.

* 우격: 억지로 우김.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②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해 이야기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이야기 밖 서술자가 상황과 인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외양 묘사를 통해 갈등 관계를 보이는 두 인물의 성격 차이를 암시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는 구성을 통해 서사에 입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29. ㉑~㉔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열악한 병실 환경을 묘사함으로써 제3 병동의 허름한 이미지를 드러낸다.
- ② ㉒: 외부의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환자들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환자들이 병원 생활에 지쳐서 무료한 상태임을 드러낸다.
- ③ ㉓: 야원 체구로 인해 병상을 두 사람이 함께 쓸 수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반어적으로 드러낸다.
- ④ ㉔: 앞서 제시된 청각적 이미지가 반복됨으로써 을씨년스럽고 암울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㉕: 가난한 이가 죽은 이후에야 병원의 도움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현실의 부조리를 드러낸다.

30. ㉑와 ㉒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는 갈등을 유발하고, ㉒는 갈등을 해소한다.
- ② ㉑는 상황을 개선하고, ㉒는 문제의 해결을 유도한다.
- ③ ㉑와 ㉒는 모두 특정 인물에게 위기를 초래한다.
- ④ ㉑와 ㉒는 모두 동일한 인물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
- ⑤ ㉑와 ㉒에는 모두 특정 인물에 대한 주변 인물의 연민이 담겨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3 병동」은 근대화 시기에 물질만능주의 풍조가 팽배해짐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가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는 의료 행위를 통해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슬픔에서 인간을 구제한다는 병원의 본질적 목적이 상실된 채, 경제적 동기와 이윤을 우선시하는 곳으로 변질된 근대화된 의료 기관이 등장한다. 작가는 이러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근대화의 흐름에 비판을 제기하면서도, 타인을 위한 배려와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할 휴머니즘의 가능성도 제시한다.

- ① ‘병실 안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롭다는 점에서, 병원의 본질적 목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김중우 의사’는 ‘수납계의 고참 직원’을 비판하며 ‘강남옥 처녀’를 치료해 준다는 점에서,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원장’은 돈을 내지 않은 ‘강남옥 처녀’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동기를 우선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제3 병동’이 입원비를 내지 않은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의 시체’를 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대 병원이 인간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인부 두 사람’은 ‘강남옥 처녀’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타인을 향한 배려와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쳐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 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 답새라: 없애고 싶어라.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부정적 상황에 처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교차하며 상황이 변화하는 순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첫 연과 마지막 연의 구조를 유사하게 구성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 ② 화자가 스스로의 처지를 인식하도록 한다.
- ③ 화자가 우러르다가 자신의 상황을 비판하게 한다.
- ④ 화자가 죽어서라도 되고 싶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에서 멀어지며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와 (나)는 각각 일제 강점기와 독재 시대라는 시대적 차이가 있지만, 우리 민족이나 당대 사람들이 자유와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담고 있다. 자유를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의 화자는 이러한 비극적인 외적 상황을 전통적인 지사 정신이라는 내적 정신력을 바탕으로 초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준다. (나)의 화자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과 대비되는 존재를 들어 절망적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겪는 고통과 이에서 벗어나고픈 열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북방’과 (나)의 ‘땅’은 비극적인 외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보여 주는 장소이겠군.
- ② (가)의 ‘매운 계절의 채찍’은 화자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외적 요인을, (나)의 ‘묶인 이 가슴’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자유를 잃어버린 화자를 보여 주는군.
- ③ (가)의 ‘하늘’은 절망의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지사적 태도를, (나)의 ‘청청한 하늘’은 자유를 잃은 화자와 대비되는 상황을 드러내는군.
- ④ (가)의 ‘눈 감아 생각해 보려 하는 것은 외적 상황을 내적 정신력을 바탕으로 초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나)의 ‘밤새워 물어뜯어도’는 화자가 자신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열망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⑤ (가)에서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 있는 상황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극한적인 상황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나)의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는 당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형상화한 것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어의 상대 높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에 비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청자가 원칙적으로 화자의 눈앞에서 말을 듣기 때문에 청자에 대한 높낮이를 좀 더 세심하게 결정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물론 주어가 2인칭인 경우와 부사어나 목적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각각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대상이 청자가 되지만, 이는 상황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상대 높임은 청자에 대한 대우의 정도에 따라 해라체, 해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하십시오체의 6등급으로 나눈다. 해라체가 청자에 대한 대우가 가장 낮고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하십시오체, 해요체, 하오체’는 높임으로 분류되고 ‘하계체, 해체, 해라체’는 낮춤으로 분류된다. 상대 높임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기도 한다. 격식체는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청자에 대한 대우의 틀을 갖춘 상황에서 주로 쓰이고, 비격식체는 청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상황에서 주로 쓰인다.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상황이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같은 청자에게 말을 할 때라도 섞어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자와 친밀하여 거리감이 적은 경우에 비격식체를 사용한다. 그런데 친구처럼 가깝고 친밀한 청자에게도 격식체인 해라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청자가 편한 대상이어서 대우의 틀에 따라 낮춤을 분명하게 드러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곧 편하고 친밀한 친구는 분명하게 낮추어도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 높낮이를 엄격하게 따져 보았을 때 낮춤말을 쓰면 안 되는 청자에게는 설령 친밀한 사이더라도 해라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격식체는 대우의 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의 등급이 포괄하는 대우의 대상이 비격식체에 비해 제한된다. 거꾸로 말해 비격식체의 대우 대상이 좀 더 포괄적이다. 그래서 해체와 해요체의 특성을 각각 두루낮춤, 두루높임이라고 한다. 청자가 화자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격식체에서는 친밀감 표시로 두루낮춤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나, 격식체에서는 해라체와 같은 청자 낮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수단은 원칙적으로 종결 어미이다. 6개 등급을 나타내기 위한 종결 어미들이 문장의 유형에 따라 대체로 결정되어 있다. 가령 ‘-니’와 같은 종결 어미는 의문문에서의 해라체를 나타낸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상대 높임의 등급은 청자에 대한 대우의 정도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 종결 어미의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종결 어미의 형태만으로는 상대 높임 등급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해체 종결 어미와 하계체 종결 어미는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으므로, 청자에 대한 대우의 정도로 구별해야 한다. 한편 해요체는 다른 5개의 등급과 달리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경우로 파악한다. 해요체에서 ‘요’를 빼면 해체가 되므로, 해체는 종결 어미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주가요?’에서 ‘요’를 빼 “회주가?”와 같이 종결 어미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5. 밑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황에 따라 하십시오체로 높이는 대상과 하오체로 높이는 대상을 해요체로도 높일 수 있다.
- ② 원칙적으로 하계체로 대우하는 대상이 하오체로 대우하는 대상에 비해 화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 ③ 해체와 해요체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등급은 모두 종결 어미의 형태에 따라 상대 높임의 등급이 결정된다.
- ④ 국어 화자는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보다 상대 높임에서 높임 대상에 대한 높낮이 결정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 ⑤ 장인이 사위에게 “자네 요즘 안색이 안 좋네.”라고 할 때와 엄마가 아이에게 “여기 꽃이 피었네.”라고 할 때의 상대 높임은 등급이 다르다.

36. <보기>의 ㄱ~ㅌ 중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ㄱ. 초등학교가 학급 회의에서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라고 하지 않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

ㄴ. 군대에서 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사적인 대화에서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고 하다가 훈련할 때에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라고 한다.

ㄷ. 유치원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는 “영미야, 어디 아프니?”라고 하다가 아이들을 집단으로 가르칠 때에는 “여러분, 여기 오리가 몇 마리지요?”라고 한다.

ㄹ. 밥을 차린 자녀가 어머니를 부르며, “엄마,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어라.”라고 하지 않고 “엄마,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어.”라고 한다.

ㅌ. 어두운 밤길에서 수상한 사람이 보일 때, “거기 누구세요?”라고 하다가 그가 친구인 것을 알았을 때 “아, 너였구나.”라고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ㅌ

37. <보기>는 받침의 ‘ㅎ’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 조항의 일부이다. ㉠~㉤을 적용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ㅎ(ㄱ, ㅋ, ㆁ)’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ㄷ]으로 발음한다.

㉡ 받침 ‘ㄱ(ㄱ), ㄷ, ㅈ(ㅈ), ㅊ(ㅊ)’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ㄱ, ㄷ, ㅈ, ㅈ]으로 발음한다.

㉢ ‘ㅎ(ㄱ, ㅋ, ㆁ)’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ㅅ]으로 발음한다.

㉣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ㄴ]으로 발음한다.

㉤ ‘ㅎ(ㄱ, ㅋ, ㆁ)’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① ㉠에 따라 ‘책상 위에 책을 놓고’에서 ‘놓고’를 [논코]로 발음하였다.
- ② ㉡에 따라 ‘방 안에 불을 밝혀’에서 ‘밝혀’를 [발켜]로 발음하였다.
- ③ ㉢에 따라 ‘그의 말이 옳소’에서 ‘옳소’를 [올쏘]로 발음하였다.
- ④ ㉣에 따라 ‘손끝이 천장에 닿는’에서 ‘닿는’을 [단 : 는]으로 발음하였다.
- ⑤ ㉤에 따라 ‘눈이 소복이 쌓였다’에서 ‘쌓였다’를 [싸연따]로 발음하였다.

38. <보기>의 밑줄 친 ‘품사 통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에서 ‘오늘’은 명사이다.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 격 조사와 결합하는 등 명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오늘 만나자.’에서 ‘오늘’은 부사이다. 격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만나다’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등 부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단어가 여러 품사에 속하는 현상을 품사 통용이라 한다.

- ① 「이 일을 하려면 중일이 걸린다.
└오늘은 날이 중일 흐리다.
- ②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 ③ 「채송화가 화단의 여기저기에 피었다.
└이왕 떠난 여행이니 여기저기 잘 둘러보고 와라.
- ④ 「나를 위한 건 물론이고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물론 앞으로 더 잘 되겠지.
- 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가깝게 지냅시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의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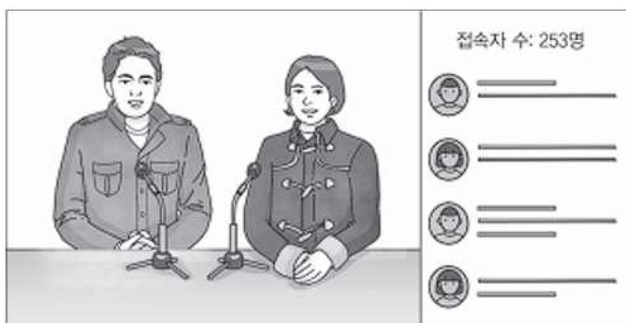
- ㉠ 모음 ‘·’는 16세기 이후 둘째 음절 이후에서 주로 ‘ㅡ’로 변했다.
- ㉡ 자음 ‘ㅅ’은 근대 국어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 전에 소멸하였다.
- ㉢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자 료>—

- ㉠: ㅁ애 > 가위
- ㉡: 나느 > 나는
- ㉢: 아스 > 아우
- ㉣: ㄴ르치다 > 가르치다
- ㉤: ㅁ슴 > 마음

- ① ㉠의 변화에는 ㉠, ㉡이 확인된다.
- ② ㉡의 변화에는 ㉠, ㉢이 확인된다.
- ③ ㉢의 변화에는 ㉡, ㉣이 확인된다.
- ④ ㉣의 변화에는 ㉠, ㉢이 확인된다.
- ⑤ ㉤의 변화에는 ㉠, ㉡이 확인된다.

[40~43] 다음은 보이는 라디오의 본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반갑습니다. 매주 ㉠ 화요일 생활 속에서 지구를 구한다는 의미인 ‘지구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지구 사랑’의 진행자 김○○입니다. 오늘도 지구 돌보미 여러분께서 실시간 댓글 창에 많은 글을 올려 주고 계시네요. 방송 진행 중에 댓글들을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탄소 발자국을 고려한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지구하는’ 패션인 슬로 패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패션 분야 전문가 안△△ 님입니다.

안△△: 안녕하세요. 패션 전문 개인 방송 운영자이자 패션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안△△입니다. 오늘 제 의상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진행자: 아, 그러고 보니 입고 계신 코트가 ㉡ 예전에 유행했던 소위 ‘떡볶이 코트’네요. 4529 님이 방금 댓글로 알려 주셨어요. (웃음) 이 의상이 오늘 말씀하실 슬로 패션과 관련이 있나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들은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취자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회색 계통의 코트인데 단추 대신에 떡볶이처럼 생긴 막대 같은 것을 서로 연결하여 앞을 막는 형태의 코트라고 할까요? (웃음) 이렇게 말하니 상당히 어렵네요. (웃음) 우선 슬로 패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까요?

안△△: 슬로 패션은 친환경적인 의류의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고, 자원의 낭비와 빠르게 변하는 유행을 지양하며, 노동자의 권리 및 동물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얼마 전 가나의 수도 아크라 시내에 있는 의류 폐기물 산이 국내 방송으로 알려지면서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반성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패스트 패션은 쉽게 말해 유행을 빠르게 반영해서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유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행이 바뀌면 수많은 의류가 버려지게 되어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A]

진행자: 가나의 수도에 있는 의류 폐기물 산을 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아크라 시내에 그런 것이 있으며 이것이 왜 문제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 아크라에는 세계 최대의 중고 의류 시장인 칸타만토 시장이 있습니다. 의류 폐기물 산은 이 시장에서 버려진 의류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많은 의류 폐기물이 생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의류를 빠르고 싸게 공급해야 하니 주로 합성 섬유로 제작해요. 합성 섬유는 석유 기반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토양 및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폐기물 산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의류를 중고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B]

진행자: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 저번 주 방송을 통해 의류나 신발 등 글로벌 의류 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전체 산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10%에 해당한다는 것을 듣고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알아보니 의류 산업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도 전체 산업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니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없나요?

안△△: 역시 ‘지구 사랑’의 진행자답게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네요. (웃음) 국내에서는 옷을 사지 않는 소위 ‘노 쇼핑족’이 등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경우 ㉣ 2030년까지 생산자 책임 제도 정착을 통해 유럽 내 패스트 패션을 종식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제도란 의류업체가 의류 폐기물의 처리 과정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C]

진행자: 그럼 이제 슬로 패션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9873 님, 3072 님 등 많은 분이 ‘지구하는’ 슬로 패션

에 기꺼이 동참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시네요.

안△△ : 우선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천연 섬유로 된 제품을 구입하시고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가끔적 오래 입는 습관을 형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 섬유로 된 제품이라도 천연 섬유를 제해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은 또 다른 환경 오염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에 오래 입으시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코트는 저와 12년을 함께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진행자: 오히려 저는 유행에 따르지 않는 패션이라서 더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 옷은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정말 중요한 소재이죠. 여기에 이왕이면 환경까지 고려한 패션을 지향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진행자: 무조건 공감합니다. ‘지구하는’ 우리의 멋진 패션을 기대하며, ㉓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0. 위 보이는 라디오에 반영된 진행자의 방송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상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수용자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 시각적인 정보를 언어적인 정보로 바뀌어서 전달해야지.
- ② 매주 주기적으로 새로운 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니, 방송의 전반적인 취지와 함께 지난주에 방송된 내용도 소개해야지.
- ③ 중간에 방송을 듣기 시작하면 앞의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마무리 인사 전에 방송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야지.
- ④ 수용자들 간의 정보 이해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지.
- ⑤ 수용자가 방송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으니, 참여를 독려하고 방송 진행 중에 수용자의 의견을 제시해야지.

41. [A]~[D]의 진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C]와 달리 ‘슬로 패션’을 소개하면서 대비되는 속성을 가진 다른 대상의 개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A]의 내용 중 ‘의류 폐기물 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 ③ [B]에서는 [C]와 달리 ‘패스트 패션’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개념을 정의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④ [C]에서는 [D]와 달리 ‘패스트 패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 ⑤ [D]에서는 [A]에 제시된 ‘슬로 패션’을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추가로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발화의 시점과 상관없이 일정한 요일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② ㉡: 발화의 시점과 상관없이 특정한 과거의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③ ㉢: 발화의 시점에 따라 실제 가리키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이다.
- ④ ㉣: 발화의 시점과 상관없이 특정한 연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⑤ ㉤: 발화의 시점에 따라 실제 가리키는 날이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이다.

43. 다음은 위 방송의 청취자 게시판이다. 청취자의 반응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라나나** : 슬로 패션의 실천 방안으로 천연 섬유로 된 제품을 구입하라고 하면서도, 천연 섬유로 된 제품 사용의 장점 보다는 단점을 부각하는 것 같아요.
- **현정훈의차력쇼** : 우리나라가 중고 의류 수출국 중 5위라는 것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중고 의류의 수출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신입22** : 현시점에서 생산자 책임 제도를 강화하는 유럽 연합의 움직임이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국내에서도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반감으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모짜렐라치즈** : 의류 산업에 사용되는 물의 양이 전체 산업의 20%라고 소개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 **고대를 고대해** : 패스트 패션의 개념이나 문제점은 제시되어 있지만 슬로 패션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아쉬워요.

- ① ‘라나냐’는 전문가가 제시한 슬로 패션의 실천 방안이 하나만 제시되어 여러 입장을 두루 반영하지 못해 공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 ② ‘현정훈의차력쇼’는 진행자가 제시한 중고 의류 수출국의 순위가 최신의 정보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③ ‘신입22’는 전문가가 제시한 유럽 연합의 움직임이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 ④ ‘모짜렐라치즈’는 진행자가 제시한 의류 산업의 물 사용량에 대한 통계가 신뢰성이 낮은 출처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⑤ ‘고대를 고대해’는 전문가가 제시한 패스트 패션의 개념이나 환경 오염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나 귀족에 예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유 음악가의 길을 선택했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경제생활을 영위했을까요? 베토벤은 귀족들의 후원금 대신 출판사를 통해 악보를 판매하거나 연주회 방청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당시의 연주회는 귀족들을 위해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는 대중을 위한 연주회를 열고 그들에게 방청권을 판매하는 사업적 판단을 한 것이죠.

특히 그는 자신이 만든 음악에 **작품 번호**를 붙인 **최초의 음악가**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 번호를 기준으로 출판사에 작품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며 작곡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당시에는 저작권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만 **베토벤은 창작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했고 자신의 작품을 지키기 위해 불법 복제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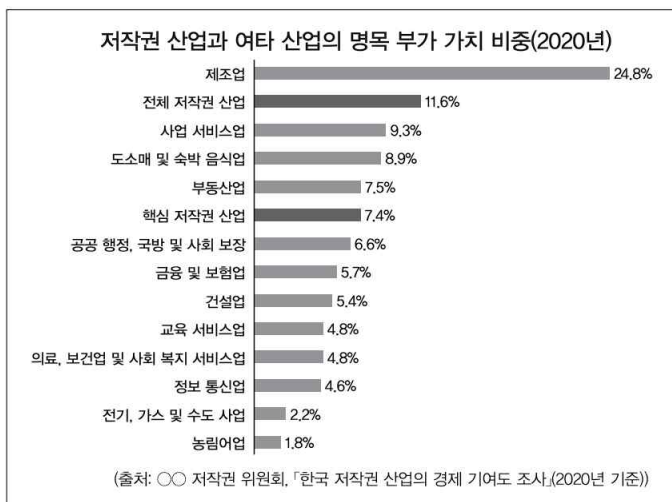
[자료 1]

‘C장조의 현악 5중주곡’은 라이프치히의 브라이тко프 운트 헤르텔사에서 출판되었음을 알린다. 동시에 빈의 알타리아사와 모로사에서 같은 시기에 출판한 5중주곡은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여기서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알타리아사와 모로사에서 출판한 악보는 오류가 아주 많고 부정확하며 연주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베토벤이 1803년에 「비너 차이통」에 투고한 글로, 이를 계기로 자신의 곡을 편곡해서 출판한 알타리아 출판사와 무려 3년간 법정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과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편곡한 대상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베토벤 이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제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창작물을 존중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저작권 위원회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저작권 산업의 명목 부가 가치 비중은 11.6%로 산업 전체 중 제조업(24.8%)에 이어 2위입니다. 또한 핵심 저작권 산업은 7.4%로 금융 및 보험업보다 높습니다.

[자료 2]



저작권은 창작의 유인이자 다른 창작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정말 귀중한 자산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단 복제나 유통이 너무 쉬워진 요즘, 저작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죠. 이제 베토벤의 업적은 음악에만 국한할 것

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 구성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베토벤 #작품번호 #저작권 #저작권과경제

📄 283 댓글 23

이 블로그의 글 (클릭 이동)

피아노 작곡의 두 산맥, 쇼팽과 리스트	영혼을 울리는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세상을 품은 예술의 수도사, 바흐	환상과 열정의 음악, 슈만과 브람스
20××, 08, 24.	20××, 08, 19.	20××, 07, 07.	20××, 05, 11.

<이전 / 다음>

44. 위 블로그에 대한 매체 수용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며 매체 생산자나 다른 수용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겠군.
- ② 글자의 진하기 차이를 통해 매체 생산자가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글의 작성 일자와 수정 일자를 통해 블로그에서 소개된 글을 매체 생산자가 어떻게 수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글의 아래에 ‘#’ 기호와 함께 제시된 정보를 통해 매체 생산자가 제작한 현재 글의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군.
- ⑤ ‘이 블로그의 글’을 통해 매체 생산자가 그동안 누적해 온 글의 제목과 제작 시기를 파악할 수 있고 간편하게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45. 위 블로그에서 활용한 [자료 1]과 [자료 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 1]은 [자료 2]와 달리 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어 정보의 신뢰성이 높은 자료이다.
- ② [자료 1]은 [자료 2]와 달리 블로그의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자료이다.
- ③ [자료 2]는 [자료 1]과 달리 저작권과 관련된 산업의 증가 추이를 시간적 순서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 ④ [자료 2]는 [자료 1]과 달리 수치를 반영한 그래프의 길이를 통해 항목 간의 양적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이다.
- ⑤ [자료 1]과 [자료 2]는 모두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정보를 각각 인접 배치하여 상반된 정보가 부각되는 자료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